

# 아동재활병원 부족... '의료 난민' 된 장애아동

### 광주·전남 운영 병원 5곳 뿐 장애아 3000여명 수도권 전진 지자체·지역사회 지원 절실

보성군에 사는 이종석(45)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늦둥이 아들(5)이 있다. 지난 2014년 예정보다 3개월 빨리 태어난 아들은 오랜 기간 인큐베이터에서 지냈다. 이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오른쪽 편마진 단을 받았다.

이씨는 아들의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서둘렀으나, 보성은 차지고 인근 대도시인 광주에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이씨는 수소문 끝에 서울 소재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지만, 그나마 입원가능 기간은 4주일에 불과했다. 재입원을 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입원 대기자가 너무 많아 입원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에 “좀 더 치료해 달라”는 부탁 한마디 하지 못했다.

이씨는 요즘 광주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한방과 양방을 병행하는 기본 3개월 과정의 어린이 재활전문치료 병동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씨의 아들은 현재 광주 청연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기간도 길어 효과가 꽤 높다는 게 이씨의 말이다.

어렵게 치료의 길을 찾은 이씨는 ‘로보’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회당 10명에 불과한 청연한방병원의 어린이 재활 프로그램이 내년까지 마감돼 나머지 장애아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지용 청연한방병원장은 “장애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는 넘치지만, 운영이 어렵고 수익이 나지 않는 탓에 대부



청연한방병원이 운영하는 아동재활 프로그램에서 장애어린이가 감각통합 치료를 받고 있다.

분의 병원에서 꺼리고 있다”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소아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어렵게 치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 소아재활센터를 열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처럼 3000명이 넘는 광주·전남지역 장애 어린이들이 지역 내에 재활 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수도권 병원을 떠도는 ‘의료 난민’이 돼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집을 떠나 먼길을 오가는 힘든 여정은 물론 막대한 치료·재활비용 등도 큰 문제지만, 치료받을 병원조차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게 장애아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장애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커녕 지역 내 아동재활병원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말조차 무색하게 하고 있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에 등록된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수는 1327명, 전남도는 1761명(14세 이하)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장애아동은 3088여명에 이른다.

광주·전남에서 이들 장애 어린이를 재활치료하는 병원·병상은 신가병원 12병상, 청연한방병원, 희망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각 10병상, 기독교병원 5병상 등 5개 병원 47개 병상에 불과하다. 5개 병원 모두 광주에 있다.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이 극소수인 이유는 낮은 소아재활 치료 수가와 소아 치료사 인력 부족 등 각종 환경 요인이 겹치면서 민간에서 소아재활병원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어린이용 재활의료기구는 공급이 적다 보니 성인용에 비해 2배 이상 비싸고, 재활치료도 성인 재활과는 달리 치료사가 1대1로 진료해야 한다. 그만큼 재활치료가 어렵고 인건비 등도 많이 든다.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지원 등이 절실하지만, 광주시 등 자치단체와 지역 사회에서도 장애아동 치료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무관심 속에 장애아 가족들은 한달평균 400만원이 넘는 치료·거주·교통비 등을 부담하며 수도권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김영인 장애어린이전문 물리치료사는 “장애아동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고, 10년에서 20년 넘게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큰 효과를 볼수 있는데, 치료 병원이 한정돼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한영기자 young@

## ‘즐거운 사라’ 마광수씨 자택서 목 매 숨져

소설 ‘즐거운 사라’로 유명한 소설가 마광수(사진)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가 5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이날 낮 1시 51분께 마 전 교수가 자택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같은 아파트 다른 집에 사는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마 전 교수 목 매 채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마 전 교수는 시인 윤동주의 작품을 발견한 가족에게 남긴다는 내용과 시신 처리를 그 가족에게 맡긴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발견됐다. A4용지 1장짜리 유언장은 지난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 전 교수는 가사 도우미와 함께 지내왔으며, 도우미가 이날 정오께 집을 비운 사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관계자는 “마 전 교수가)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최근에 많이 수척해졌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는 등 한다가 들었다”고 전했다.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마 전 교수는 시인 윤동주의 작품을 발견한 가족에게 남긴다는 내용과 시신 처리를 그 가족에게 맡긴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발견됐다. A4용지 1장짜리 유언장은 지난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1991년 발간한 ‘즐거운 사라’가 외설 논란을 빚어 1992년 한동안 구속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연세대에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했으나 해직 경력 때문에 명예교수 직함을 달지 못했다.

연합뉴스

## 고액 병원비 때문에...

### 귀국길 고려인 3세, 공항가는 버스에서 돌연사

고액의 병원비 때문에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려던 고려인 3세 노자가 공항행 버스에서 숨졌다.

광주는 숨진 고려인 3세의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가족은 장례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예브게니(36)씨는 고국에서 신장염 치료를 받기 위해 이날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행 고속버스에 탑승했다가 쓰러져 숨졌다.

지난 7월 13일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예브게니씨는 친동생인 니콜라이(32)씨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원룸에서 지내면서 인근 설비공장에서 같이 일해왔다.

고급심통증이 느껴져 건강에 이상징후가 나타났지만,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체류한 지 90일이 지나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탓에 병원치료도 포기했다.

동생 니콜라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10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돼 100만원이면 치료 가능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장례비용도 문제다. 총 134만원이 청구됐는데, 동생인 니콜라이씨도 임금의 일부가 체납되는 등 상황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예브게니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주변인 진술을 청취할 방침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학교전담경찰관이 여중생 자매 성추행

### 전남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남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해온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45)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학교 7곳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인 A경위는 올해 6월 말 자신이 맡고 있는 모 중학교의 여중생 2명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이 학교 전담경찰관 담당인 A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조순가정으로 자매기간인 이들 여중생과 상담하면서 정서적·물리적 지원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생들이 요청하면 수시로 밥을 사주거나 차량으로 집에 태워다주고 교복을 세탁해주며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이 과정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학생을 외부에서 상담할 때는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여경 또는 동료 경찰을 동행하고 학교 측과 경찰서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을 지키

지 않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던 여중생 자매를 챙기던 A 경위는 올해 6월부터 차 안이나 학교 밖 장소에서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추행당한 사실을 최근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A 경위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부남이기도 한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반년 넘게 만나오면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인 A씨가 선을 어기고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하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교비 14억원 빼돌린 대학 총장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5일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 소재 C대 강모(70)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여교수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경쟁업소 짜장면 그릇 훔친 배달원 “우리 그릇인 줄 알고...”



경쟁업소의 짜장면 그릇을 훔친 20대 중화요리 배달원이 경찰서행.

경쟁업소의 짜장면 그릇을 훔친 20대 중화요리 배달원이 경찰서행. ○~5일 광주 관산경찰에 따르면 A중화 음식점 배달원인 차모(25)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 B회사 앞에 놓여있던 C업소의 짜장면 그릇과 반찬 용기 20여점(시가 6만원 상당)을 자신의 오토바이 수거

통에 담아갔다는 것.

○~차씨는 애초 경찰에서 “우리집 그릇인 줄 알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B사가 단골거래처를 A업소에서 C업소로 바꾼 점을 주목, 연관성을 집중 추궁하자 “경쟁업소의 그릇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자백.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경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b>감정가 183,000,000</b> 최저가 128,000,000</li> <li>▶광산구 박호동 임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13200평 <b>감정가 192,000,000</b> 최저가 192,000,000</li> <li>▶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95평 <b>감정가 202,000,000</b> 최저가 202,000,000</li> <li>▶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b>감정가 273,000,000</b> 최저가 273,00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성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b>매매가 38억</b></li> <li>▶서구 치평동 조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업종 가능 <b>매매가 17억</b></li> <li>▶서구 마곡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b>매매가 38억</b> 조정가능</li> <li>▶서구 마곡동 연화아파트 입구 126평 <b>매매가 5억2천</b></li> <li>▶서구 마곡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b>매매가 3억</b></li> <li>▶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b>평당 40만원</b></li> <li>▶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전 도로점 토지 200평 <b>매매가 1억5천만원</b></li> <li>▶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b>매매가 51억</b></li> <li>▶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b>평당 40만원</b></li> <li>▶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적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b>3억</b> 조정가능</li> <li>▶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li> <li>▶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b>매매가 3억5천</b></li> <li>▶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b>5억 5천만원</b></li> <li>▶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li> </ul>
공 장	일 반 물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b>감정가 938,000,000</b> 최저가 420,00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b>매매가 520,000,000</b></li> <li>▶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b>매매가 11억</b></li> <li>▶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9평 <b>매매가 23억</b></li> <li>▶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9평 <b>매매가 17억</b></li> </ul>

---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